

■ 영화 속의 유대인 ■

## <하얀 리본>에 나타난 20세기 유럽 사회의 일상 폭력과 유대인 학살 간의 상징적 의미

박지현

### I. 잃어버린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40초당 1명이 자살하고 60초당 1명이 살인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sup>1)</sup> 그만큼 현대 사회에는 생명 경시와 폭력 현상이 일상생활에서 커지고 있다는 표현이다. 오늘날의 폭력 문제는 인간의 사고력 결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사고력’이란 인간 실존의 자연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인문학적 사유의 힘이라 할 수 있다. 폭력을 막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인간 생명’이란 단순히 법적 체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을 위한 사회 현실적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의식과 행동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세월호 사건, 즉 선장을 비롯하여 민간 잠수 단체, 해군·해경 등 국가 기관의 행동에서 인간 생명에 대한 사고력이 얼마나 결여되었는지 보여준다. 그 결과는 미래 희망인 청소년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라고 본다. 인간의 생활양식이 과학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대체되는 근현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스러움에 대한 사유를 잃어버리고, 각자의 생명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자신뿐만 아닌 타자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이다. 인간 생명의 보편적 성스러

1) 이영선, 「WHO ‘40초당 1명 자살로 숨져’ 보고」, 『크리스천투데이』 (2002.10.04); 장문정, 「전세계적으로 40초당 1명씩 자살」, 『브레이크뉴스』 (2005.01.12).

<하얀 리본>에 나타난 20세기 유럽 사회의  
일상 폭력과 유대인 학살 간의 상징적 의미

움이 사라진 자리에 일상의 폭력이 차지하고,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타자를 위해 또 다른 타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인종 학살까지도 자행될 수 있는 것이다.<sup>2)</sup>

20세기 전반 유럽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 즉 2차 대전의 유대인 학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각 유럽 국가는 나치 독일과 협력하여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까지 아우슈비츠(Auschwitz)<sup>3)</sup> 강제 수용소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외국인 유대인에 대한 억압과 체포가 실시되었고, 이후에서야 시민권자인 유대인의 검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나치 독일의 억압 대상인 유대인이 유럽 전체 사회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sup>4)</sup>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과거 전체주의적 범죄행위의 원인을 ‘악의 평범성’에서 찾았는데,<sup>5)</sup> 그녀가 나치 전범인 칼 아돌프 아이히만(Karl Adolf Eichmann)의 재판을 참관한 후 “악한 일은 대부분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sup>6)</sup> 이 개념은 유대인 학살이 가져오는 궁극적 원인을 되짚어 보는 데 유효하다. 나치 독일 이전, 유럽 사회에 퍼져 있던 ‘악의 평범성’, 그것은 곧 일상의 평범한 폭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생명의 성스러움을 잃어버린 사회란 일상의 폭력이 자행

- 
- 2) 박선아, 「생명과 성스러움(le sacré): 새로운 생명윤리의 정립을 위한 시론」, 『프랑스학연구』 43호 (2008, 봄), 288-289.
  - 3) 아우슈비츠는 독어 지명이다. 이 도시는 폴란드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폴란드어 지명은 오슈비엥침(Oświęcim)이다. 폴란드어보다 독어 지명이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폭력의 역사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의 단어가 사용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 4) 박지현, 「폭력의 역사에서 두 유대인 - 영화 <라운드업>, <바시르와 왈츠를>에서 나타난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68집(2014.5), 440-441.
  - 5)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University of Chicago, 1958),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49-54.
  - 6)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1963),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진부성에 대한 보고』 (한길사, 2006).

되는 사회이며, 이것이 곧 국가 차원의 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영화 <하얀 리본 The White Ribbon>을 통해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 영화는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사건을 직접 다룬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쟁 직전 파시스트나 그들의 행동을 다룬 것도 아니다. 1차 대전 직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었을 뿐이지만. 이 영화는 일상생활에서 극대화된 폭력성이 결국 인간 생명의 경시를 가져왔고, 전쟁의 발발로 극대화될 수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징성을 통해 유럽 사회 전반에 깔려진 폭력이 2차 대전 중 유럽 국가들이 유대인 출신 시민을 체포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내는 데 동조할 수 있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일상 폭력과 ‘악의 평범성’ 간의 관계

영화 <하얀 리본>은 2009년 미하엘 하네케(Michael Haneke)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이 있었다. 출생지는 독일 뮌헨이고, 성장기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보냈다. 비록 <하얀 리본>에서는 독일 지역을 주로 다루지만,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졌다. 연극 연출과 시나리오 작가에서 시작했다가, <제 7 대륙 The Seventh Continent>(1989)을 통해 영화감독으로 데뷔하였다. 이후 <베니의 비디오 Benny's Video>(1992), <우연의 연대기에 관한 71개의 단편 71 Fragments of a Chronology of Chance>(1994), <퍼니 게임 Funny Games>(1997), <미지의 코드 Code Unknown>(2000), <피아니스트 The Piano Teacher>(2001), <늑대의 시간 Time of the Wolf>(2003), <히든 Caché>(2005)을 거쳐 <하얀 리본>(2009), 그리고 <아무르 Amour>(2012)에 이르기까지 모두 11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다. 그의 영화 중 10편이 칸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 초청을 받았고, 그중 7편은 경쟁부문에 진출하였으며, <피아니스트>가 심사위원 대상 및 남녀주연상을 수상하였고, <히든>이 감독상 및 국제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한데 이어서, 마침내 <하얀 리본>과 <아무르>은 2009년, 2012

〈하얀 리본〉에 나타난 20세기 유럽 사회의  
일상 폭력과 유대인 학살 간의 상징적 의미

년 대상인 황금종려상(Palme d'Or)을 수상하였다.<sup>7)</sup>

그의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하얀 리본〉뿐만 아니라 폭력과 관련된 작품들이 이미 제작되었다. 특히 나치 독일이라는 역사를 겪은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인종차별주의, 제노포비아(xenophobia), 반유대주의의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는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족은 외양적으로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구성원 각자가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고, 결국에는 집단 자살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탈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의 희생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sup>8)</sup>

영화 〈하얀 리본〉도 이와 같은 맥락의 폭력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913년-1914년 독일 북부 지역 가상의 농촌 마을인 아이히발트(Eichwald)에서 일어난 일련의 범죄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에 의사가 누군가 설치해 놓은 줄에 걸려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시작으로 방화, 사고사, 실종사건, 심지어 한 아이의 눈을 도려낸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마을은 공포에 휩싸인다. 마을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에 의해 이 일들이 서로 연관된 사건임이 밝혀지지만 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학교 교사는 마을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 교사가 과거 사건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폭력을 핵심 주제로 삼는 이유에 대해 하네케 감독은 현실 속에서 전쟁과 재난과 같은 큰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잠재되어 편견과 무관심, 갈등 등이 알게 모르게 폭력성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적 삶 수준에서 훨씬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한다.<sup>10)</sup> 이 때문에 그는 전쟁과 재난에 주목하는 할리우드식 주류 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

7) 남완석, 「미하겔 하네케 : 폭력의 일상성에 대한 거리두기적 관찰: 〈하얀 리본〉을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4집 (2011), 323.

8) 앞의 논문, 324.

9) 네이버 영화 〈하얀 리본〉 줄거리,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2983> (검색일자: 2014. 5.1).

10) 남완석, 「미하겔 하네케 : 폭력의 일상성에 대한 거리두기적 관찰」, 325.

간의 사고가 전제되지 않는 영화는 관객에게 폭력의 심각성을 자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폭력 간의 관계에 거리를 두어 일상생활의 폭력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결과적으로 폭력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이다.<sup>11)</sup> 결국 하네케 감독은 영화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잃어버리고, 혹은 잊어진 억압을 개인적 삶에서나 집단적 삶에서 복원시키려는 데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다.<sup>12)</sup>

영화 <하얀 리본>의 마을에서는 각각의 가정마다 폭력의 주체가 있으며, 그들은 권리를 내세우지만 실상 집안을 장악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sup>13)</sup> 하네케는 이러한 근대 가족 문화의 폭력을 독일 파시즘의 기원과 연결시켜 거시적 폭력과 미시적 폭력 사이의 연결 고리를 포착하고 있다.<sup>14)</sup> 근대 사회에서 파시즘형 인간의 성장이 폭력으로 점철된 가정 문화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성장하여 히틀러의 공범자가 되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보여준 것이다.<sup>15)</sup> 이 영화를 통해 그는 독일 파시즘의 기원으로서 근대 독일 가정 문화의 폭력을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다.

하지만 영화 <하얀 리본>이 독일 파시즘과 독일 가정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해석뿐만 아니라 이를 유럽 사회의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폭력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쟁과 재난 같은 폭력 사건을 권리(droit)와 권력(pouvoir)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서 기원한다고 규정하였다.<sup>16)</sup> 권리가 권력으로 변모되면서 권력은 폭력을 수반하고, 결국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폭력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1) "Entretien de Michael Haneke", *Le Monde* (le 22 mai 2003).

12) Ipek A. Celik, "'I Wanted You to Be Present': Guilt and the History of Violence in Michael Haneke's *Caché*", *Cinema Journal* vol. 50, No. 1 (Fall 2010), 69.

1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영화 장면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최용찬, 「독일 파시즘의 문화적 기원: <하얀 리본>에 나타난 근대 가족 문화의 폭력성」, 『역사와 담론』 63집(2012), 62.

14) 앞의 논문, 62.

15) 앞의 논문, 64.

16) Le Run Jean-Louis, "Introduction", *Enfances & Psy* no.45 (2009.4.), 12.

<하얀 리본>에 나타난 20세기 유럽 사회의  
일상 폭력과 유대인 학살 간의 상징적 의미

이점에서 ‘악의 평범성’은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폭력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인간 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대전 직전 유럽 국가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유럽 사회는 여전히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적용되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인간 권리가 포기된 사회에서 살았기에 일상 폭력에서 전쟁이라는 국가 폭력으로 전환되기가 쉬웠다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 중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계 시민을 체포하는 데 동조했던 이유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권 선언문의 내용과 상반된 유럽 사회의 모습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III. 인간의 기본권과 유럽 사회의 일상 폭력 간의 관계

흔히 서양근현대사란 프랑스혁명을 위시하여 신분제가 무너지고 인간의 권리, 즉 투표권으로 상징되는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인권선언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의 제1조-제4조에 따르면,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자유권과 재산권과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내용과 무색하게, 20세기 전반(1914-1945: 1차 대전 전후에서 2차 대전 전후까지) 유럽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독일 제국은 19세기 말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한 철혈정책으로 통일되었고 이후부터 유럽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군사력을 증진시켰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sup>17)</sup>은 중세 이래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충성심과 무력을 통해 통합을 유지하였으며, 헝가리의 독립을 억압하였다. 심지어 입헌제와 공화정 아래 영국과 프랑스 제국은 내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외부적으로 식민지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위상조차 허용하지 않는 억압과 탈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sup>18)</sup> 당시 유럽 사회란 인간 기본권과 반대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 점이 영화 안에 반영되어 있다. 권리가 현실의 권력 앞에 사라져 버릴 때, 폭력은 필수 조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이 무너진 자리에 어떤 권력과 폭력이 수반되는지 영화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의 폭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신분의 폭력, 둘째는 교육의 폭력이다.

### 1. 신분의 폭력: 대지주와 소작농 간의 관계

마을에서 가장 경제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남작이다. 가을 수확기에 펼쳐진 경작지의 면적을 보더라도 대지주이며, 마을의 대다수 주민은 그의 토지에서 일을 하는 소작농이다. 그들 관계에는 집사가 있었고, 그는 남작의 명에 따라 소작농에게 일거리를 나누어주었다. 이 마을은 토지를 매개로 봉건적이고, 위계질서적인 신분제 사회라 할 수 있다. 또한

---

17) 당시 황제가 프란츠 요제프 1세(Franz Joseph I)였는데 하네케 감독이 말한 대로 가족의 폭력사를 겪었던 인물이다. 황후 엘리자베트(Elisabeth von Wittelsbach)가 암살당했고, 황자 루돌프(Rudolf Franz Karl Joseph)는 자살했고, 황태자가 된 조카, 프란츠 페르디난트(Franz Ferdinand)도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1차 대전이 발발되었다.

18) Edward Wadi Said, *Orientalism*(Routledge & Kegan Paul, 1978),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0); John Atkinson Hobson, *Imperialism* (first edition, 19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제국주의론』, 신홍범 역(창비신서, 1993) 참조.

남작과 소작농 사이에서 끊임없는 권력의 갈등이 내재된 곳이기도 하다. 이점을 소작농 펠더(Felder) 집안과 관련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9)</sup>

소작농 펠더의 아내가 남작의 제재소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때가 수확기로 접어들면서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던 시기이다. 그녀는 팔이 성치 않았기 때문에 집사의 지시에 의해 수확일 대신 제재소로 배치된다. 낡은 나무 바닥을 밟으면서 아래로 떨어져 추락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큰 아들은 수확하는 사람들 중 약한 사람만 제재소로 보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며 억울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호소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하길, “어떻게 하길 원하는데, 남작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 거냐? 아니면 집사를 죽이고 싶어? 낫 들고 가서 머리를 베어버리렴. 그런다고 네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펠더의 아내 장례식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왔지만 그 이후 잊어진 사건이 되어버린다. 추수 감사절이 되어 남작은 연설을 한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었고, 하늘은 따사롭고 창고는 가득 찼으며, 맥주는 잔에 가득 넘칠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굶지 않을 것이요.” 이에 마을 사람 모두 “남작님, 만수무강 하시길!”를 외친다. 목사가 남작의 연설에 이어 기도도 축사를 하고 곧 마을 사람들은 음식과 춤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잊는다.

이때 남작의 양배추 밭이 난도질당하는 일이 생긴다. “수확이 끝나고, 모두가 대가를 받을 때 누군가 이를 얻지 못하게 되면 양배추가 당신을 대신해 절단날 것이다”라는 오랜 전통적 속설로, 남작은 이를 수습하고자 한다. 이를 저지른 자는 펠더의 큰 아들 막스(Max)이고,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한다. “1년 동안 우리를 살게 해 주는 프리다(남작 집에서 일하는 딸)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여름 동안 여기에서 일할 수 없게 되면! 너는 2년 안에 결혼하고 농장을 경영하길 원한다고 했지! 남작의 도움 없이 모두가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지! [그게 가능한 일이니!] 그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

19)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경우는 현재형 문장으로 쓰겠다.

한] 책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니?”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 펠더는 모른다고 말할 뿐이다.

이 날 밤에 남작의 아들 지기가 사라진다. 마을 주민 모두가 찾아 헤매어 찾았으나, 펠더의 아내가 죽었던 제재소에 거꾸로 매달린 채 발견된다. 이 사건으로 남작 부인은 야만스럽고 폭력적인 마을에 자녀들을 둘 수 없다고 선언하고, 서둘러 그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난다.

남작은 마을 주민에게 이 사건을 일으킨 자를 고발하도록 호소하나, 주민 사이의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사건의 용의자였던 펠더의 큰 아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았지만, 목격자가 없어서 풀려난다. 돌아온 아버지는 그에게 소리친다. 남작이 더 이상 일을 주지 않고 프리다가 수치스럽게 쫓겨났고, 형제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날 밤 제재소에 불이 나고 펠더는 목을 매달아 죽는다. 모든 주민이 일련의 폭력 사건에 대한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처럼 펠더 집안과 얽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봉건적이고 신분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이와 다른 차원의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인간의 자유권이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회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마을은 계급 신분 사회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유권이 허용된 사회이다. 농부 펠더는 남작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며, 큰 아들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신분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받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법적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남작과 같은 국가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시민 개인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에 국가의 전횡에 영원히 침묵하게 되는 사회를 상징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침묵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불복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국

<하얀 리본>에 나타난 20세기 유럽 사회의  
일상 폭력과 유대인 학살 간의 상징적 의미

가가 그 적법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인이 들 때”라고 하였다.<sup>20)</sup>

그러나 이 마을의 현실에서 법과 권위에 끝까지 도전하는 개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혼자이지만 자유를 사랑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회복을 지향하며, 권세자에게 예속되지 않은 채 공공선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은 거의 없는 것이다.<sup>21)</sup> 불복종 개인들이 비록 소수라고 해도 질적인 면에서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이를 포기한 자들은 폭력을 재생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불복종이라는 자발적 행위조차 일어날 수 없는 집단이기주의, 혹은 전체주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남작과 펠더 사이의 신분 관계는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가 타인 또는 타 집단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가면서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와 폭력에 의존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2)</sup> 2차 대전 히틀러의 유럽이라는 비대해진 거대 권력 안에서 타성에 젖은 유럽인들이 예속의 삶을 사는 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일부였던 유대인 시민의 학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 교육의 폭력: 목사, 교사, 그리고 학생 간의 관계

마을의 정신적 지주는 목사이다. 그는 마을 주민에게 도덕과 윤리를 설파하면서 기득권 층에 속해 있는 자이다. 그는 세속 교육보다 종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의 축을 담당하는 자이다. 남작의 사회를 지켜주는 파수꾼인 그에게, 교육이란 남작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주는 장치이다.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사까지 통제하는 모습이 영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목사의 폭력적인 가정교육은 ‘하얀 리본’의 상징성과 관련성이 깊다. 자녀

20)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정치에서의 거짓말, 시민불복종, 폭력론』 (한길사, 2011), 116.

21) 박선아, 「안티고네를 통해 본 국가의 위기와 시민론 -콰토와 아누이의 작품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0집(2012, 봄), 124.

22) 앞 논문, 146.

들이 저녁 식사에 늦게 와 거짓된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녁 식사는 물론이요 체벌에다 하얀 리본을 달게 한다. 이것은 친진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나, 이를 지키지 못한 아이들에게 벌로 내리는 일종의 주홍글씨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목사의 딸과 아들, 클라라와 마르틴은 아버지의 폭력에 항상 두려워한다.

마르틴이 성에 관심이 커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자, 이를 금기시키기 위해 거짓 이야기로 아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준다. 그 이야기는 이웃 마을의 한 소년이 자위행위로 식욕을 잃고 잠을 잘 수 없게 되어, 기억력이 떨어져 급기야 얼굴에는 농포가 가득차서 죽었으며, 이를 목사가 장례 예배에 참여해서 목격했는데 마치 시체가 노인과 같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에게 그 죄를 고백받기 위해 말한다. “나는 단지 너를 돕고 싶다.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마르틴 진실해져야 한다.”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하는 아버지, 목사는 아들한테 사춘기 시절의 신체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 세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일이다. 목사는 마르틴에게 하얀 리본뿐만 아니라 밤마다 침대에 단단한 끈으로 손을 묶어 자위행위를 못하게 만들고, 이를 마르틴의 어린 동생에게 지키도록 만든다.

마르틴은 이러한 아버지에게 벗어나기 위해 하친 다리의 난간 위로 걸어가 자살과 같은 행위를 이미 시도한 적이 있다. 이를 막아준 사람이 영화의 내레이션에 맡은 학교 교사이다. 그는 ‘목이 부러지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남자란 걸 보여주기 위해 위험하다고 말하는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책망하자, 마르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전 신께 저를 데려갈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교사는 “왜 신께서 네가 죽기를 원하겠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나를 봐, 약속해. 나를 믿지 않는 거니?” 말하자, 마르틴은 “아뇨. 믿어요, 선생님”하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교사의 말에 마르틴은 소스라치며, 그것만을 절대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목사의 딸, 클라라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아버지의 존재

<하얀 리본>에 나타난 20세기 유럽 사회의  
일상 폭력과 유대인 학살 간의 상징적 의미

로 고통을 받는다. 학교에 신학 수업을 하러 오자, 어수선한 학교의 분위기에 이미 목사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주의 기도문으로 시작한 수업 시간은 딸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소리 지르는 원숭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주기 시작한다. 건진성사를 통해 신의 언어를 전달해 주고 싶었지만 아이들 안에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키워줄 수 없다는 비난한다. 그는 이 소란의 중심에 클라라가 있음을 지목하고, 그녀에게 다시 하얀 리본을 달아준다는 공개적 체벌을 공포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졸도한다. 폭언과 폭력에 대한 공포감이 그녀를 혼절하게 만든 것이다. 마르틴과 다르게, 그녀는 목사가 아끼는 새를 십자 모양으로 가위로 찢러 죽게 하여 목사의 서재 책상 앞에 갖다 놓는다.

학교 교사는 두 아이가 당한 폭력을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을 주축으로 일련의 사건들, 의사 낙마 사건, 남작의 아들인 지기의 납치 사건, 장애아 카를리의 신체적 공격 등이 일어난 것임을 직감한다. 그는 이를 목사와 의논하기 위해 목사의 집을 방문하여 마을의 폭력 사건들에 목사의 자녀와 자신의 제자들(마을의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카를리는 낙마 사건에 관련된 의사의 사생아로, 그의 어머니는 의사 집에서 일하는 산파로, 그녀가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아이로 소문이 난다. 소문이 나기 전에 카를 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두 눈이 도려진 채로 발견된다. 학교 교사는 이 일을 전후해서 카를리를 찾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폭력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직감하지만, 이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목사의 윤리적인 책임을 믿고서 이를 해결하고자 그의 집을 찾아가나, 오히려 그에게서 협박을 받는다.

내 짐작에는 내가 이 끔직한 이론을 처음 듣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이 만일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닌다면, 당신이 존경할만한 가족들과 아이들을 고발한다면, 그리고 공공연히 비난한다면, 맹세컨대 당신을 감옥에 처 넣을 것이요. 나는 목사로서 많은 일들을 보아왔지만, 이번처럼 혐오스러운 것은 처음이요...당신은 마음이 병든 것이요. 어떻게 아이들 틈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교장과 이야기를 해야겠군. 이제 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소.

이 사회에서 교육은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르치는 공교육의 기관이 아니다. 법적 사회의 지식 체계가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이다. 초·중등 교육 체계가 있어도 실제로 그 지식을 적용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가 아닌 것이다. 폭언과 체벌이 난무하지만, 종교라는 명목 아래 합법적인 폭력이 자행된 곳이다. 나아가 자신의 권력에 위배되지 않는 타인의 폭력까지 묵인할 수 있고, 이를 침묵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곳이다. 비록 역사상 교육이라는 속성이 사회나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근대 교육의 추세는 강제적 복종보다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목사의 교육은 오직 강제적 복종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은 경시될 수밖에 없다.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종교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폭력은 종교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합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마르틴이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점을 놀라워해서 이를 목사에게 알려주고자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르틴에게 공포스러운 일인 것이다. 급기야 마르틴은 아이들과 함께 타인의 생명(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어른과 그 자녀들)을 빼앗는 일에 참여한다. 자신의 생명을 경시한 자는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공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영화에서 목사와 마을의 학생들(목사의 자녀 포함) 간의 관계는 폭력의 재생산에 있다. 종교의 본질인 성스러운 생명이 파괴된 자리에 교육은 폭력을 모방하는 재생산을 촉진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학교 교사가 폭력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목사가 이를 자각하고 해결점을 찾았다면, 교육이 폭력을 강화시키는 대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인류 문화 연구가인 르네 지라르(Réne Girard)에 따르면, “우리는 폭력에는 모방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모방은 [대단히] 강렬한 것이기에 공동체 안에 일단 자리 잡은 폭력은 스스로 사그라들지 않는다...만일 사람들이 그들 중의 단 한 사람이 모든 폭력 ‘모방’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오염시키는 ‘오염’으로 보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장일치 한다면 이 믿

<하얀 리본>에 나타난 20세기 유럽 사회의  
일상 폭력과 유대인 학살 간의 상징적 의미

음은 정당화될 것이다.”<sup>23)</sup>

그러나 목사는 자신의 폭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학생들의 폭력을 옹호하고, 이를 오점이 아닌 정당화하거나 은폐함으로써, 가정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을 통해 계속 폭력을 재생산하는 중심축이 된다. 비록 학교 교사도 이를 알고 있지만, ‘오점’이라고 말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 이 같은 목사나 교사의 태도는 유대인 학살에 협력한 자, 그리고 이에 협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 침묵했던 당시 유럽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 IV. 일상 폭력에서 국가 폭력으로?

영화 <하얀 리본>은 일상 폭력이 가지는 가공할 만한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일상 폭력의 피해자가 곧 이를 모방하고,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1, 2차 대전, 파시즘의 등장, 유대인 학살 사건 등과 같은 역사적인 전쟁과 학살의 주도자였고, 국가 폭력의 진원지가 일상 폭력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다.

둘째, 국가 폭력의 진원지로서 일상 폭력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권리를 얻고자 저항하려는 개인적, 집단적 차원의 노력이 없을 경우, 권력은 폭력을 수반하여 계속 합법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국가 폭력이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유럽 사회 전반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경시가 심각했고, 결과적으로 유럽인들이 유대인 학살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1차 대전의 발발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은 자막 내용이 나타난다.

---

23) René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é* (Grasset & Fasquelle, 1972), 김진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운』 (민음사, 2004), 126쪽.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했습니다. 8월 1일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 포고를 했고, 그 다음 월요일에는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침통한 분위기로 열린 예배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이제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 자막의 의미는 이제 국가 폭력의 사건이 유럽 국가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차례인 것이다. 일상 폭력이 국가 폭력의 진원지일 수는 있지만 국가 폭력의 발발은 곧 폭력을 모방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가 훨씬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 Lev Nikolayevich Tolstoy)는 『국가는 폭력이다』에서 그 이유를 핵심적으로 말한다.

억압적인 권력의 지지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우겨댄다.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란 한갓 환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지지자는 국가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민중, 또는 시민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민중을 억압하고 변화를 기피하는 국가의 진화적 권력에 맞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고 수호하기 위해 유럽인은 1914년부터 1944년까지 무엇을 해야 했는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하지 않을까? 일상 폭력에서 국가 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럽인은 스스로를 폭력의 피해자로만 규정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억압과 폭력 앞에서도 자유를 사랑하고, 세력가들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공공선에 봉사하는 법을 아는 시민들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영화 <하얀 리본>이 궁극적으로 유럽인을 포함한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서강대학교, rosep@sogang.ac.kr